

# 고흥 농수산물 수출 1억 2400만 달러…수출 메카 부상

3년 연속 1억 달러 돌파 쾌거…전국 군 단위 지자체 최고액  
세일즈 마케팅·시장 다변화·현지 맞춤형 기업 지원 등 효과

고흥군이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2025년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억2400만 달러(한화 약 1795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3년 연속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달성한 쾌거라는 점에서 고흥 농수산물의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 뒤에는 고흥군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군은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공격적인 해외 세일즈 마케팅 ▲수출 시장 다변화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고흥군은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일본·중국에 머물지 않고, K-푸드 열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눈을 돌려 ‘수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이 현지 판촉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것이 신규 판로를 뚫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땅 흘린 농어업인과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쓴 수출 업체, 그리고 행정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고흥산(産)’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글로벌 패키징 디자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K-고흥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 수출 목표액을 1억 5000만 달러(한화 2170억원)로 상향 설정하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가공 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일출객 3800명 떡국 나누며 희망 넘친 새해맞이



지난 1일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3800여 명이 참여해 떡국 나눔을 비롯해 신년 소원 빌기, 포토부스 체험, 쌍봉 풍물단 공연 등을 즐기며 활기찬 새해 아침을 맞이했다.

여수 ‘소호 분산 일출제’ 성황…소원 빌기·풍물당 공연 등

여수시·한화솔루션(주)·여수 쌍봉동 통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1일 소호요트경기장에서 ‘2026 소호 분산 일출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 3800여 명이 참여해 떡국 나눔을 비롯해 신년 소원 빌기, 포토부스 체험, 쌍봉 풍물단 공연 등을 즐기며 활기찬 새해 아침을 맞이했다.

이번 일출 행사는 여수시의 행정적 지원과 한화솔루션(주)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쌍봉동 통장협의회가 직접 따뜻한 떡국과 음료를 정성껏 제공하며 봉사활동을 펼쳐 행사에 온기를 더했다.   
또한 쌍봉동 주민자치회 풍물단은 새벽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힘찬 풍악을 울리며 현장 분위기를 돋웠고 참여자들에게 새해의 기원과 즐거운 주

역을 선사했다.   
임태신 쌍봉동 분산 일출제 추진위원장은 “여수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인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열리는 분산 일출제가 점차 알려지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를 통해 여수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여수=동부취재본부장 김창화 기자 chkim@

## 순천시, 지역상품권 최대 12% 할인 ‘소비 촉진’

다음달까지 두달간…소비 수요 지역 내 가맹점 유도 ‘경제 선순환’

순천시가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행사를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류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회인이 적용되며,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10% 선회인에 더해 사용 금액의 2%를 후게시백으로 제공해 최대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할인 구조를 통해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를 지역 내 가맹점으로 집중 유도하고, 상품권 구매뿐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

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후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용 빈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새해 기간에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역시 확인됐다 는 평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시 관계자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관내 농협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농가 일손 부족 해소·경영비 절감

보성군이 기상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경작지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점·별교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 등 4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77종 56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에는 총 8837농가가 7392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 규모는 약 1억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공동 활용이 확대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올해 역시 농촌 인력난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



보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내부 모습.

이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보성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원, 신형 농기계 구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대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 관계자는 “저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임신 준비 부부에 엽산제 지원

3개월분 연 1회…보건소·중마통합보건지소서 신청

광양시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부부가 함께 엽산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경관 결손 등 태아 기형과 조산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여성이 만 49세 이하이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3개월분 엽산제를 연 1회 지원한다.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지원하는 엽산제는 의약품으로 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엽산은 수정 후 4주 이내 형성되는 태아의 중추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관 결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모자보건사

업은 임신부 등록 이후 엽산제를 지원해 임신 준비 단계 부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복용해 왔다. 광양시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단계 건강관리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주·야간 임신부 교실을 비대면까지 확대 운영했다. 시는 2026년 엽산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촘촘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항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친환경 쌀 소비 촉진 공공·민간 협력



구례군, 다자간 업무 협약

구례군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쌀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금융·농협·민간이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지난달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구례군의회, 탄소중립특별리기운동본부,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구례농협, (주)풀과나무, 그린올린(주) 등 친환경 농업과 유통·소비 촉진에 뜻을 함께하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통해 참여기관들은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소비 기반 구축 ▲공공부문 쌀 소비 확대와 민간 소비처 발굴을 통한 판로 다각화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협력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농식품 분야의 정책자금 지원과

금융 컨설팅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구례군은 공공 급식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쌀 소비를 확대하고, 민간 유통망과 기업·단체를 연계해 새로운 소비처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농업정책자금과 금융 컨설팅을 연계해 친환경 쌀 생산 농가와 관련 조직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구례농협과 그린올린(주)는 생산·유통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구례군은 ‘흙 살리기 고장’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친환경 농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에 생산·유통·소비·금융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더함으로써,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 옥과면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목표 85㎡ 등 70세대 공급

곡성군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옥과면 죽림리 일원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조성하게 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제안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곡성군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4월 선정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 모델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포함해 총 7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으

로 최장 1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인 옥과면 죽림리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인 일자리 기반이 형성돼 있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의료시설 등 주요 교육·생활 시설이 주변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육아와 교육,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곡성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